

지역 소식통

정읍시, 여름 수산물 취급 업소 원산지 특별 점검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취급 업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음식점을 비롯해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대형 마트 등이다.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헛갈리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규정된 표시 방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 취업지원 유관기관 일자리 협의회

부안군, 청년 취업지원 협력 부안군일자리센터는 9일 지역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업지원 유관기관 일자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지전대·전주대·한국폴리텍대·호원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8개 청년 취업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안군일자리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소노벨 변산과 풀무원 등 지역 주요 기업의 채용 수요 및 구인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제 추천, 취업캠프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협력 방안과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협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 출발 이끈 촘촘한 복지의 힘

정읍시희망복지지원단, 1년간 집중 사례관리로 실명 위기 노숙인 자립 성공 이끌어

정읍시가 건강 악화로 거리로 내몰린 위기가구를 발굴해 1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 안정 등을 밀착 지원하며 영구임대 아파트 임주를 이끌어냈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해 5월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인 데다 시력 상실 위기가까지 겹쳐 노숙 생활을 하던 시민 A씨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즉각적인 긴급 생계 지원에 나섰다. 거주 불명 상태였던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까지 얻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마켓을 연결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 주거 불안을 덜어주고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잠깐 머물게 했다. 나아가 사회와 단절된 A씨가 고립감을 떨치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관내 사회복지관 요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경제 관념이 부족했던 A씨가 매월



나오는 생계비를 체계적으로 쓰도록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그 결과 A씨는 스스로 250여 만원의 보증금을 저축했다. 마침내 지난 8일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자립의 발판을 다졌다. 이 사 담당에는 담당 직원들이 직접 집을 나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읍미란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례

는 한 사람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복지 행정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화질 CCTV 대폭 확충

방법용 500만 화소 CCTV 35대 신규 설치·노후 장비 106대 교체

정읍시가 시민 안전을 지키고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6억3,600만 원을 들여 500만 화소 고화질 방법용 폐쇄회로(CC)TV 35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6대를 교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설 확충 사업은 원룸과 주택 밀집 지역, 농산물 도난 우려가 큰 농촌 마을 등 범죄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야간에도 선명하게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5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를 새롭게 달아 감시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울러 내구연한이 지나 제 기능을 못 하던 노후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현재 정읍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전담 인력 9명이 교대 근무를 하며 관내에 설치된 1286대의 방법 카메라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영상은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거나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핵심 단서로 쓰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 키파컵 고창 전국유소년 축구페스티벌' 첫 대회 성료

전국 53개 유소년 축구팀·800여명 선수 참가... 축구 꿈나무들 한자리에 체계적 운영·우수한 경기 시설 제공... 개최지로서 가능성 입증·만족도 ↑

고창군이 지난 6~7일 고창스포츠타운 생활축구경기장과 공설운동장에서 '2026 키파컵 고창 전국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유소년축구협회(KYFA)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전국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전국 각지의 축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 53개 팀,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들까지 대거 고창을 방문해 경기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와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푸른 잔디 위를 한차게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은 초여름의 생동감과 어울려서 스포츠가 주는 감동과 즐거움을 더욱 높였다.

대회가 열린 고창스포츠타운 생활축구경기장과 공설운동장은 우수한 체



육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참가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 구장으로 조성되어 선수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으며, 잘 관리된 경기장 상태와 편의시설은 참가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우수한 경기 시설을 바탕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고창군은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의 새로운 개최지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등 수많은 방문객이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

점, 관광지를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수한 체육시설을 함께 경험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유소년축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체육시설과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소년 축구를 비롯 다양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확대 유치하여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관내 15곳 대상, 월 30만원 지급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현장을 돕고자 정읍시가 관내 어린이집 15곳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비를 기존보다 10만원 오른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정부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농어촌 지역에 자리한 어린이집이다.

기존 차량 운영비 지원 단가는 한 대당 매월 20만원이었다. 시는 이를 지난 5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인상된 금액은 오는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적용된다.

확대 지원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은 상반기 360만원에 하반기 3,240만 원을 더해 총 3,600만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기쁨과 차량 유지비가 나란히 오르면서 시설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보육 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상된 지원금을 신속하게 교부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태인도서관, 친환경 건물로 그린 리모델링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7억7,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지은 지 39년이 지난 신태인도서관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물로 새롭게 단장한다.

시는 신태인도서관이 '2026 공공건축물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는 낡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물 안팎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창호와 병

낭방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인 2027년까지 시설물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친환경 새단장 사업을 통해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쾌적한 도서관화 환경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